

# 전국 청년들, 장흥서 지역소멸 해법 찾기 '문화적 실험'

### 전남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지향 문화기획자·청년활동가 150명 집결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일환 청년유출·고령화 등 대안 논의

전국의 문화기획자 및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장흥에 모여 지역 소멸, 인구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청년 활동가 대회 '사.가.지.'를 옛 장흥교도소 일원에서 진행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가.지.'는 전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24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문화적 성과 확산과 전국에 분포된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기획돼 올해 첫선을 보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의 줄임말을 대회명으로 정해 이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했다. 광주·전남은 물론 인천, 강원 속초, 전북 완주, 제주 등 전

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환경운동가 청년 1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노래하는 은총과 유출 용암마을 이장이 함께한 전남 청년의 독백, 출세한 쓰레기들×업사이클링 뮤지 공연이 메인 이 된 오픈 세리머니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자기 전시실2에서 전국 활동가 60명의 이야기와 전남 15명의 사가지 프로젝트, 방방곡곡 회원 8명의 활동 소개 △라운드 테이블에서 7개의 사회 이슈와 청년문제 논의 △필그림 중창단과 유기농 펑크밴드의 공연 △모닥불 썬터에서 고흥 말집사 지혜씨의 반려말 '깜짝이'와 저녁 네트워크 등이 진행됐다.

청년 사업 전시 관람 및 교도소 투어도 행사 첫날 함께 진행됐다. 교도소 1층은 타지역 청년 활동가 및 청년마을 부스로 꾸며졌고 2층에는 사가지 참여인원 부스·전남 청년 정책 안내 부스가 마련됐다.

특히 청년 활동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지역의 지역소멸·청년 유출·인구 고령화 등 현안을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공동체 모임 활성화 등의 경험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열린 전국 청년 활동가대회 '사.가.지.' 오픈 세리머니. 전남문화재단 제공

이들은 '청년정책×청년담론×당사자성', '농촌쓰레기×예술×캠페인', '리턴청년×동네이장×중매', '문화기획×지원사업×행정', '할머니×기록×출판', '로컬콘텐츠×로컬커뮤니티×협동조합', '유휴공간×보존×혁신' 등 총 7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 활동가들은 향후 정책제시와 생태·공동체 등에 대한 세대적 공감을 끌어냈고 독립 문화기획자들은 선정되기 힘든 공모사업을 자생·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표·공유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순천에서 방문

한 활동가 한진희(34)씨는 "청년 활동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No플라스틱, 자원절약 등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문화 기관이 주최하는 이 같은 행사가 실제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에서 온 한 활동가는 "환경, 생태, 청년 문제로 전국 각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연결고리가 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로 삼고 있는 전남도의 관심에 발맞춰 문화 행사와 연계해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에도 귀 기울이며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국에서 지역문제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장흥에 모여 함께 토론하고 문화 행사도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며 "자발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문화적 실험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아르플래닛, '성과보고·사업설명회' 성료

지난 7일 광주디자인진흥원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단체 '아르플래닛'이 지난 7일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4년 성과보고회'와 '2025년 사업계획 공유 설명회'를 마쳤다.

19일 아르플래닛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플래닛은 올해 광주 문화재단과 광주 북구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는 등 지역 예술계

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르플래닛 협주곡의 밤'을 비롯해 지역 청년작가 유소연 작가와와 콜라보 '색채의 멜로디' 등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아르플래닛은 내년도를 더 큰 도약의 한 해로 만들고자 △참여형 공연 기획 △ESG 가치 반영 △대중과의 소통 강화를 핵심으로 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청년 예술인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초청공연 전라감영 '교방춤 댄'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국립남도국악원 (사)호남산조춤보존회 공연

### 2024 토요일상설 '국악이 좋다' 23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국립남도국악원은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초청공연 전라감영 '교방춤 댄'을 오는 23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개최한다.

19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사)호남산조춤보존회는 지역에 산재한 춤을 발굴해 계승·발전시키고자 결성된 예술단체다. 호남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 의 정서가 담긴 춤을 멋스럽게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

산 호남산조춤 보유자이자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이사장인 이길주 명무를 필두로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현재까지 전승되는 교방계 전통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길주 명무의 기본 춤인 '금아지무'를 시작으로 호남 지역의 다양한 기교와 역동성 있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전라검무', 절제미 속에서 교태미와 애절함이 돋보이는 '전라교방입춤', 호남우도농악의 개인 놀이인 구정놀이에서 비롯된 '장구춤' 등을 선보인다.

이어 남도시나위장단에 맞추어 추는 '살풀이춤', 동해안별신굿 5대 세습무인 김석출 선생의 동생인 김계향 선생으로부

터 전해지고 있는 '지전춤',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와 시나위를 바탕으로 한 산조 음악에 맞추어 추는 '호남산조춤'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교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4년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공연과 교육, 체험을 통해 풍성한 국민의 문화쉼터가 되고자 한다. 박찬 기자



지난 16일 광주 동구 충장로 위메이드스토리에서 서두연 기획자가 뮤지컬 영화 '시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두연 기획자 제공

## 광주서 뮤지컬 영화 '시카고' 상영회 개최

### 충장로 위메이드스토리서 진행 광주 청년문화허브 사업 일환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광주 동구 충장로 위메이드스토리에서 뮤지컬 영화 '시카고' 상영회가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 시민들에게 뮤지컬을 소개하고, 시민들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상영회는 광주 청년문화허브 사업의 일환인 호랭이스쿨 4기로 활동하고 있는 서

두연씨가 기획했다. 서 기획자는 "광주에서는 뮤지컬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번 상영회를 통해 시민들이 뮤지컬을 쉽게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영 후 참가자들은 영화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여자 김모씨는 "평소 뮤지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번 상영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수능 스트레스, 광주비엔날레서 날리자

### 수험생 대상 응원 이벤트 진행 입장권 할인·카페 쿠폰 등 혜택

(재)광주비엔날레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폐막일인 내달 1일까지 전시관 대표소에

2025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전시 입장권을 청소년 기준 현장 판매가 9000원에서 사전예매 할인가인 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입장권에는 수험생을 향한 광주비엔날레만의 특별한 응원 메시지도 담겨 있다.

또한 학교 단체관람이 아닌 개별적으로 방문한 수험생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50명에 한해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제

공한다. 대표소에서 현장 발권 시 입장권과 함께 제공되며 해당 쿠폰은 전시관 옆 카페 33apartment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험생 대상의 온라인 이벤트도 다음달 1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수험생 전용 입장권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제15회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수험생이벤트다. 박찬 기자